

환자는

어떤 의사를 원하는가



李 光 榮

〈한국일보 특집과학부장〉

『의사에게 양심이 있는가?』 여러해전 일본 상계이(産經) 신문 사회부 기자들이 펴낸 「이같은 의사를 고발한다」는 주제의 책자는 서두를 이같은 자극적인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 책에 나타난 몇몇 작은 제목들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환자는 의사의 실험재료가 아니다 ▲의사의 공명심은 환자에 위험하다 ▲가공할 인체실험의 유혹 ▲우리들도 인체 실험을 당하고 있는지 모른다 ▲위험한 의사와 위험한 병원 ▲가공할 오진 ▲의사의 기술은 믿을 수 없다 ▲왜 의과대학교수들은 돈에 대한 결벽감(潔癖感)이 없는가.

현재 일본 의료계를 비판하는 소리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오늘 우리의 의료계는 일본이 겪었고 또 겪고있는 이같은 문제점들이 전혀 문제되고 있지 않는 것일까?

필자는 좋은 싫든 직장동료와 독자들로부터 건강상담을 요청받게 되는 일이 종종 있다.

『몸에 열이 몹시 났습니다. 과로에 의한 몸살감

기쯤으로 생각했으나 열이 심해 모 종합병원을 찾았지요. 주사 한대와 하루분의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해열진통제인 것 같았어요. 마침 그날 야근이었는데 몸에 오한이 일어 떨고 있는 것을 본 동료들이 반강제로 떠밀다시피해서 모 대학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병실로 옮겨져 종합검진을 했습니다. 혈액과 소변, 가슴 X선은 말할 것 없고 위 X선과 대변등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해열제 주사를 맞으면 열이 떨어졌다가 약기운이 다하면 다시 고열이 계속되었습니다. 1주일쯤 지났습니다. 갑자기 병실을 옮겨야 한다며 전염병동으로 격리시켰습니다. 장티푸스라는 것입니다. 담당의사는 아침에 여러명의 수련의들을 거느리고 들어와 차트를 보이며 이것이 장티푸스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수련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지요.

전염병동으로 격리된 후 사흘이 되도록 장티푸스균이 분리되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한 듯 모 병원에 의뢰해서 방사선동위원소를 이용한 간찰영을 하도

록 했습니다. 토요일이었지요. 내과와 외과 의사들이 함께 들어와 간농양으로 판명 되었다며 길다란 주사 바늘을 찔러 넣어 고름을 뽑아냈어요. 담당내과의는 외과의사와 상의하더니 내과적으로도 치료할 수 있지만 수술하는 방법도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그러면서 내과치료를 하려면 매일같이 주사기로 고름을 뽑아 내야 하는데 상단기간이 걸릴것이란 설명이었어요. 그러나 수술을 하면 간단히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겠다고 했지요. 그리고 일요일 오전에 서둘러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후 한 외과 담당의사는 조금만 더 시간이 경과했어도 큰 일 날 뻔 했다고 하며 운이 좋았다고 했어요. 조금만 지체했어도 간종양이 터쳐 복막염을 일으킬 뻔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운이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ㄱ씨는 이같은 일이 있은후 의사에 대한 믿음성이 없어졌다고 했다. ㄱ씨는 특히 내과담당 의사가 수련의들을 거느리고 들어와 이것이 전형적인 장티푸스 증세라고 설명하자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고 나가버린 일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학병원에서 이같은 일이 생겨나고 있으니 다른 병원은 어떻겠는가고 반문했다.

이미 보도(한국일보 85년 8월 31일자 사회면 머릿기사) 된대로 마취제 할로테인(Hallotane)의 부작용으로 고귀한 생명을 빼앗긴 일이었다. 모 대학 부속병원에 80년 11월 6일 입원한 Q씨(여·31세)는 난소낭종 절제수술을 받고 무사히 회복기에 들어섰다가 12일째부터 갑자기 고열증세를 보이더니 28일 급성 전격성 간염에 의한 간괴사로 사망한 것이다. 외국에서는 할로테인의 간독성이 널리 알려져 있어 응급과 소아환자를 제외하고서는 반드시 SGOT와 SGPT 등 간효소에 대한 검사를 한다음이 마취제등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를 소홀히 해 온 것이다.

이 사건은 결국 법정투쟁을 거쳐 피고측인 문제의 병원과 담당의사 2명은 연대하여 원고 가족에게 1천2백2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렸고 이후 우리나라도 할로테인 사용에 간검사를 의무화하기에 이르렀다.

좀 오래된 일이긴 해도 일본에서 있었던 이야기

다. 후쿠시마(福島)에 사는 스즈끼(鈴木·당시 38세)씨는 집단검진후 「위염에 조심하십시오」란 판정을 받았다. 스즈끼씨는 나이가 40이 가까와 오기도 하여 암에 대해 신경이 쓰여졌다.

그래서 병원에 가 종합검진을 받았다. 결과는 놀랍게도 위암일 가능성이 크니 조기에 수술을 받게 좋다는 판정이었다. 스즈끼씨는 그날로 입원을 해서 2일후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도 배를 열고보니 위에 종양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집도의사는 위암에 준해서 절제수술을 했다.

수술은 3시간 계속되었는데 모든 것이 잘 진행되었다. 그러나 수술을 마치고 몇분 후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 갑자기 혈압과 맥박이 떨어져 치아노제 증상이 나타난 것이다. 산소를 공급하고 심장 맛사지를 했지만 수술후 25분만에 환자는 생명을 잃고 말았다.

일본 마스크는 이로해서 발각 뒤집혔다. 멀쩡한 사람을 위암환자로 몰아 죽게 했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없었다고 감히 장담할 수 있을까. 또 이같은 일이 알려진다 해도 우리나라에서 과연 일본에서와 같이 커다란 사회문제로까지 발전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이 철저히 마련될 수 있을까.

의료혼란이 우리사회에서 문제되지 오래다. 한밤의 응급환자가 이병원 저병원을 맴돌다 올바른 치료 한 번 받지 못하고 죽어갔다 해서 사회의 지탄을 받았는가 하면 응급환자가 입원비가 없다 해서 치료를 거부당해 무리를 빚기도 했다. 의료보험 환자의 차별대우 문제도 항간에 말썽을 빚고 있다.

『전화를 걸어 물어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소개할 때도 의료보험환자는 보지 않는다고 했지만 혹시 해서 확인해 보았어요. 간호원의 대답이 의료보험환자는 다른 의사선생님이 본다고 했어요. 고 3학생이어서 오래 기다려야 하는 대학부속 병원은 시간때문에 갈 수 없고 해서 유명하다는 의사를 찾아 보였습니다. 몇가지 검사를 한 후 만성 결막염이란 진단이 나왔는데 장기간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6개월 정도를 열심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료보험 카드가 있었지만 한창 중요한 시기에 눈에 이상이 있다면 큰일이라 생각해서 일반진료를

계속 받았지요. 아이의 아빠가 알면 야단맞을것 같아 숨기고 말았읍니다. 얼마를 더 치료받아야 하나냐고 하니 그만와도 된다고 할 때까지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궁금한 것이 있어 더 물으면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면서 통명을 주는 것이었읍니다. 설명도 잘 해주지도 않고 무턱대고 계속 치료를 받으라고 하니 낭패가 아닐 수 없었어요. 사흘에 한번씩 가서 안약과 내복약을 타가지고 오는 것인데 약도 달라지는 것도 아니었읍니다.

하는 수 없어 아이의 아빠에게 사실대로 이야기 하게 되었어요. 아빠는 친구되는 안과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찾아 뵙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 친구되시는 안과의사는 그이상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었읍니다. 고3 학생들은 밤늦게까지 책을 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충혈은 흔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읍니다.』

이 부인은 이같은 일이 있은 후 아이는 그 이상 눈이 뻗뻗하다느니 머리가 아프다는 호소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아이가 대학 예비고사에서 생각보다 좋은 성적을 받지못해 1차 지방에서 타락된 후 그 유명하다는 의사를 원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돈도 돈이지만 아주 중요한 시기에 필요없는 치료를 받기위해 사흘에 한 번씩 학교를 조퇴한 것이 마음에 내내 걸린다는 것이었다.

『2시간 기다려 2분』이란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다. 물론 이는 이름난 종합병원의 경우이지만 이때문에 친절할 수 없고 모든 환자에 대해 주의를 집중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름없는 도심지를 벗어난 의원은 어떤가. 환자가 없어 파리를 날리고 있다. 그래서 이들 의원들은 문을 닫고 도심지로 몰려들 수 밖에 없다.

서울대의대李文鎬교수는 매년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오진률이 17.2%였다고 밝힌 바 있다. 6명을 진찰해서 이중 1명이 잘못 진단 됐다는 것이다.

이렇게 따질 때 의원급에서의 오진률도 적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名醫에 대한 관념이 남달리 강하다. 漢醫學에 의존해 온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전통적인 관념이 뿌리깊게 마음 한 구석에 도사리고 있기 때

문이라 하겠다.

그러나 종합병원의 名醫를 찾아 몰리는 현상은 일반 개업의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적지 않다.

특히 최근 일어난 鄭건강관리소 진료 부정사건은 의학계에 대한 일반인들의 불신을 한층 부채질하는 큰 사건이었다. 아직도 이같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의료계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醫術」은 「仁術」이란 말을 아직도 흔히 쓰고 있다. 그러나 仁術이란 말은 현대사회 속에서 걸맞지 않다는 소리가 있다. 모든것이 바빠 돌아가고 가치관이 현실과 실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이때 仁術을 요구하기엔 너무나 비현실적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의사와 환자가 단순히 사무적일 수만은 없는 일이다. 의료보험제도가 일찍부터 도입 크게 발달된 미국에서도 의료는 역시 많은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가 사무적이지 아니란 사실이다.

개인주의가 발달 다분히 사무적인 미국에서 의사가 환자의 임종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의 상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의사와 환자 사이에 인간미가 점차 단절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웬일일까.

의료인 한사람 한사람을 대하면 대부분이 요즘 되어가는 갖가지 잘못된 의료제도와 행위에 대해 비판과 걱정을 한다. 그러나 이같은 의료인도 상당수가 진찰실에 들어가 환자와 일대일이 되면 권위자로 변한다. 잘 알려진 이야기이지만 현혈을 호소하면서도 의외로 의료인 가운데 이에 호응하는 사람이 적다 한다. 일정한 양의 혈액을 뽑아내는 일은 몸에 이로울 수 있다고까지 한다.

또 가족계획을 위해서 정관수술을 권한다. 씨없는 수박이 좋으나.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장려하는 의료인 가운데 몇사람이나 정관수술을 받았을까. 물론 심각한 인구문제에 대처한 어쩔 수 없는 차선책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그렇긴해도 개개인의 건강과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다 신중하게 대처했

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국민은 생각보다 훨씬 현명하다. 시간이 문제일 뿐 언젠가는 모든 것을 알게 된다. 물론 앞서 열거한 의료계의 문제 점들은 의료인 하나하나를 탓할 수 없는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 파생된 것일 수 있다. 아니면 의료계 극히 일각에서 빚어진 사건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일련의 사태들이 국민이 의료계를 보는 눈을 긍정적인면보다는 부정적인면으로 기울게 했다는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의료는 衣·食·住 다음의 제4의 생활 필수요건으로 대두되었다. 의료보험제도가 의료인의 손을 벗어나 다른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다.

아뭏든 오늘 우리의 의료계는 무엇인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과거에 생각하듯 일방적인 고상한 仁術은 아니더라도 보다 인간적일 수 있기를 갈망하고 있다.

한 일본 제약회사가 실시한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인가」에 대한 설문 조사는 「질병의 상태를 잘 설명해주는 의사」가 압도적으로 많아 66.6%를 차지했다. 대부분의 환자와 그의 가족들은 질병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기를 바라고 있다.

다음은 ▲항상 왕진해 주는 의사(30.9%)▲약을 거의 주지 않고 식사와 그 밖의 주의를 해주는 의사(12%)▲병을 중하지 않게 보고 여간해서는 주사를 놓는다든지 약을 주지 않는 의사(9.6%)▲주사를 자주 놓고 약을 많이 주는 의사(6.1%)의 순을 보였다. 가장 인기없는 의사는 ▲완고한 의사 ▲값비싼 약을 주는 의사로 나타났다.

또 미국 미네소타의대 외과 오웬 H·왕겐스틴교수는 대부분의 미국환자는 신뢰할 수 있으면서 친절하고 솔직하며 진지한 의사를 바라고 있다고 보고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같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가 바라는 좋은 의사상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러나 환자와 그의 가족들로부터 알아본 좋은 의사상은 첫째, 실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둘째, 환자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고 셋째, 병의 상태를 친절히 설명해 주는 의사가 지배적이다. 환자와 의사사이의 인간관계를 아주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의료인들도 좋은 의사상으로 ▲겸손한 의사 ▲환자의 주머니 사정을 잘 알아주는 의사 ▲환자가 어느 전문의에게 가야할 지 교통정리를 해 주는 의사 ▲한 번쯤 병을 앓아본 의사 ▲전문서적 외에도 교양서적을 읽는 의사 ▲솔직한 의사를 꼽는다면 ▲환자의 병을 빨리 판단해서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속히 손을 쓰고 병이 자신의 소관이 아니면 쓸 데 없는 치료를 하지 말고 지체없이 전문의에게 넘기는 의사를 좋은 의사상으로 꼽고 있다.

의사는 병을 치료하지만 완치시킬 수는 없다. 병은 하나님(또는 자연)이 치유시킨다는 말이 있다. 따라서 의사는 환자의 가족과 합심해서 병이 빨리 낫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겸허한 자세로 충실히 하는데 힘을 기울일 때 오늘날 부정적인 측면으로 의료계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대의료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